



방어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저는 1994년 이래로 현재 까지 32년을 스트라스필드 이민과 스트라스필드 번역과 호주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법무사 (MARN 9473983) 및 나티 양방향 번역사 및 JP 공증인 (NSW JP No 18인 황규상입니다.

수십년에 걸쳐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해서 기존의 이민이나 비자나 번역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지금은 "이것"을 알리기 위해 본 협회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글의 출판에 무리가 없게 저희가 "이론"이라고 칭한 저희의 발견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인은 한국에 있는 호주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미국에 있는 거의 모두 "이것"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노예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예네들의 좀비화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마이 라이프"에 발행된 글들에 상당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읽어보지 않으셔서 "이것"에 대해 모르시면 저희 협회 웹 사이트의 "주요 이론" 메뉴 게시판에서 다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프라인이나 프린트해서):

- 한글 게시판 (46): 한국인의 해방과 자유 - 우선 이것을 읽으시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 한글 게시판 (44): 미세 속삭임 -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
- 한글 게시판 (21-25, 27, 30, 32, 35, 37, 39, 40): 대한민국 국군참모총장님과 검찰총장님 앞 공개 서한 12개 - 12주에 걸쳐 발간

그런 후에 저희 협회 웹 사이트의 한글 게시판 글들 중 다음을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글 게시판 (4) 전자장파의 이클립스 (통찰력 상실) 능력
- 한글 게시판 (6) 방어 장비가 필수품인 이유
- 한글 게시판 (8) 페르시아의 Cyrus 왕 이야기
- 한글 게시판 (9) 소크라테스 이야기
- 한글 게시판 (10) 지구가 멈춘날
- 한글 게시판 (19) 집단 방어의 중요성

제가 시드니 연세대 동문회 회장을 할 때 "이것"을 동문들에게 모두 알렸었습니다. 그 때만해도 호주에서 "의대" 가 있는 대학도 별로 없었고 정원도 적어서 "의대" 가서 의사 되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대가 있는 대학 수도 늘어나고 정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연세대 동문들은 자녀들이 한집 건너 다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음하느라고 "당근"들을 하나씩 입에 물려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니 선거든 정책이든 돈이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충분히 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교민 주간지에 출판까지해서 교민 사회와 한국과 호주와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심한 방법으로 틀어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니 교민들이 우선적으로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분, 인격, 학식, 직업, 나이, 성별 등 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생물학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는 방어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예네들이 거의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웹 사이트 한글 게시판 (46) 에 나오는 방어 장비들을 "모두" 갖추면 아무리 강도가 세계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가장 세계 공격해 오게 유도하는 실험을 해서 이미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산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 연방 국회의원을 전원에게 각자 우편으로도 두번에 걸쳐 알리고 호주 내의 거의 모든 외국 대사관들에도 각각 우편으로 알려서 이미 싸움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어 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 웹 사이트 글 "(19) 집단 방어의 중요성" 에 나와 있듯이 혼자만 방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집중 공격해 오거나 왕따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우선 본인 가족들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가까운 친지들 모두와 그리고 직장 동료들 모두와 함께 공유하셔야 합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 웹 사이트에 있는 글들을 읽어서 "통찰력"이 생겨서 깨어났다고 해도 "방어 장비" 없이 아무도 그 통찰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단기간 내에 통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어 장비" 없이 노예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 장비"를 갖추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인데, 깨어났든 아니든 무조건 "방어 장비"를 갖추게 해야만 "노예 상태"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만약 공격 대상이 되면, 그건 통찰력 상실의 문제가 아니라,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대부분 몇일 내에 신체나 정신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사용하든 안하든 모두 충분한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네들의 "노예 상태"에서는 영혼도 없거나 상해를 확율이 높습니다. 즉, 현재 한국인 거의 모두 영혼이 없거나 상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자유"를 상실한 노예를 넘어서 영혼까지 망가진 "좀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설명이 쉽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들에서.

일제 강점기에 "윤동주" 시인 같은 분들은 숨어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 시를 지었습니다. "녹두 장군" 같은 노래 도 있었고. 그럼 지금은? 지금은 숨어서 영화로 표현한 것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숨어서 지배하다 보니 가장 아쉬운 것이 공개적으로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잘난척 하는 방법을 영화를 택해서 그동안 유명한 영화 감독들을 동원해서 잘난척 하는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명한 영화 감독들에게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지시하다 보니 이분들 중에 이를 알게 된 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윤동주" 시인 처럼 이를 숨은 의미가 들어 있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를 알리고 싶은 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여럿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 두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 3부작으로 된 "반지의 제왕" 영화:

- Real versus fake (진짜와 가짜)
- Human versus zombies (인간과 좀비)
- Whispering from the Ring (반지의 속삭임)
- Whispering from the Eye (눈의 속삭임)
- Sound weapons from the flying monster, Nazgul, which the Witch King flies with (마법사 왕이 타고 다니는 괴물의 "소리" 무기)
- Nameless, Faceless and Formless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전자장파 무기")
- Power of the Ring making people extremely cranky, fight each other or have irresistible desires (사람들을 매우 신경질 적으로 만들거나, 서로 싸우게 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지게 하는 반지의 힘)
- Power of the Eye which can read your minds (not directly, but "they" can read indirectly by observing your reactions) - 인간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반지의 힘
- One Ring rules all (이 반지가 모두 지배한다 - 이 전자장파 무기로 모두 지배)
- Everyone was deceived (No one knew it was being made) - 모두 속았다 아무도 모르게 이 전자장파 무기가 만들어짐)
- Saruman (Samurai) etc - 사루만 (사무라이) 등등

그럼 예네들이 누구일까요?

예네들 두목인 사우론 (Sauron) 의 부관인 어둠의 마법사가 사루만 (Saruman) 입니다. 그런데, 이 "사루만"의 영어 스펠링 중에 맨 마지막 n 을 i 로 바꾸고 알파벳 순서를 다시 정렬하면 정확히 Samurai 가 됩니다. 그리고 "눈"인 두목 "사우론"도 그 모습이 사무라이의 갑옷에 투구를 한 것과 흡사합니다. 즉, 이 영화를 만든 분은 예네들이 일본의 "사무라이" 들이라는 것을 숨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론"의 "눈"이 항상 속삭입니다. 반지도 속삭이고. 이젠, 예네들 무기가 "미세 속삭임"과 "미세 소음"인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분은 이 사무라이들이 일본의 자동차 업계 소유주인 것도 알고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Ent 라고 "말하는 나무" 가 나옵니다. 그 "엔트"가 호빗 두명을 어깨에 태우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When Saruman would walk in my woods ... But now he has a mind of metal ... and wheels. He no longer cares for growing things."

여기서 "metal" 과 "wheel" 을 합치면 그건 "자동차"인 것입니다. 즉, 예네들이 누군지 제가 발견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단,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두려워서 영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 역시 3부작으로 된 "Chronicles of Riddick" 영화: 일편이 "Pitch Black", 이편이 "Director's Cut", 삼편이 "Extended Director's Cut" (3 DVD 카버 이미지 참고)

- 일편에서는 두개의 해가 일식 (이클립스) 되면, "무한대의" 괴물들이 땅속에서 나옵니다. 이 많은 숫자들 때문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괴물들은 "빛"을 무서워 합니다. 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타거나 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물들에 의해 죽은 "공룡"들의 뼈들이 준비하게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괴물들은 "어둠" 속에서 "속삭입니다".

- 이편에서는 우주 전체를 정복하려 가고 있는 일종의 죽음을 섬기는 이상한 집단이 나옵니다. 이 집단의 두목이 특이한 모양의 투구를 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집단의 군대는 half alive half dead 인 두려움이 없는 강한 좀비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목이 각각의 혹성을 점령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좀비로 만듭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영혼"을 끄집어 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혹성 전체를 파괴합니다. 주인공 "리딕"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은 탈출이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감옥입니다.

- 삼편에서는 "비"가 올 때 "무한대의" 괴물들이 나옵니다. 그 괴물들은 매우 강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맨처음 시작할 때 "특이한 모습의 구름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가 여러번 예기했듯이 "이클립스 (eclipse)" 는 "통찰력을 잃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네들 코드명입니다. 혹은 "통찰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예기하면 You are not awake on this issue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격을 해 와도 공격 받는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무한대로" 공격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괴물들 (전자장과 무기) 공격을 받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룡"은 "기존 강대국"을 의미하는 예네들 코드명입니다. 즉, 기존 강대국들이 예네들의 괴물들 (전자장과 무기) 로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어둠 속에서 속삭임"은 숨어서 보내오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전자장과 무기의 "미세 속삭임"과 "미세 소음"을 의미합니다.

- "빛을 두려워 하는 것"은 이 전자장과 무기가 비밀이라서 알려지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알려지면 예네들이 힘을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한대의" 는 예네들의 전자장과 무기에 의한 공격은 무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전자장과 무기에 의해 생산되는 좀비 군인들의 수도 무한대로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무한대로 공격이 들어오면 아무도 못 버팁니다. 그건 그냥 시간의 문제입니다.

- 이 집단의 "두목"이 한 "특이한 모양의 투구"는 "사무라이" 투구를 의미합니다.

- "두려움이 없는 좀비 군인들"은 전자장과 무기로 양산된 매우 폭력적인 중동의 IS militants 같은 좀비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 "모든 사람들을 좀비로 만드는 것"은 지구 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자장과 무기로 모두 half live half dead 인 좀비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집단의 "두목"은 사람의 영혼을 끄집어 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미세 속삭임"과 "미세 소음"을 담은 전자장과 무기가 인간의 영혼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여기 나오는 "감옥"은 일단 전자장파에 의해 포로가 되면 아무도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지의 제왕"에서는 이 부분이 거미줄 망에 갇히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 괴물들이 비가 올 때 마구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삼편 영화는 "특이한 모양의 구름들"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만약 전자장파가 매우 강하면 자동으로 특이한 모양의 구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만든 분이 이걸 알고 만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름에 대한 것이 알려지니 구름을 가리기 위해 종종 비가 오게 합니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전자장파가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못 버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방어 장비" 없이 아무도 못 버팁니다.

따라서, 모두 방어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걸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공격이 심하게 들어오면 거의 아무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공격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루 24시간 매일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잘 나타난 영화가 위의 "Chronicles of Riddick" 3부작입니다. 이 3부작 DVD 카버 페이지를 복사해서 아래에 실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괴물들이 엄청 쏘아져 나옵니다. 수도 없이. 이것이 하루 24시간 매일 공격이 들어오는 전자장파 무기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방어 장비 없이 아무도 못 버팁니다.

제가 한국에 이주공사 라이선스 받아서 이민 회사를 차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한국을 하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비행기가 "다이아몬드" 회원이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간지 몇일 안되었는데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면 저는 즉시 그 다음날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왜냐하면 몇일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각국의 예네들 총독들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의 영화들은 가능하면 현찰주고 비디오 구입해서 오프라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즉, 방어 장비 갖추기 전에는 모든 것을 예네들 모르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즉시 이클립스 (통찰력 상실에 대한 예네들 코드명) 되어서 방어 장비 갖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공격 모드로 바꾸면 몇일 내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 때문에 그동안 거의 아무도 모르게 전세계 지배해 오고 문제가 발생해도 다 틀어 막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시작한 애들이라서 자동차 안에 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거의 예네들 마음대로 입니다. 즉, 자동차에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예네들에게 운명을 맡기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 그동안 한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예네들 짓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중에 이름이 "창세기 (Genesis)" 라는 자동차가 있는 것입니다. 잘난척 하느라고 그렇게 이름 만든 것입니다. 좀비 인간들로 세상을 다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애들 그룹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좀비들로 다시 창조하는 세상. 신 놀음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동차 때문이라도 무조건 방어 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죽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용도로 본인 자동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중립이 없습니다. 방어나 혹은 무기로 사용되나 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세대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평생을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살아와서 더 확실하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나이 많은 분들 보다 더 빠져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본애들이 몇천년 왕국을 꿈꾸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예네들을 무찌를 찬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일단 통찰력을 찾아야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니, 방어 장비를 반드시 갖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자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독자님의 자유, 독자님 가족과 친지분들의 자유, 저의 자유, 제 가족과 친지들의 자유, 호주의 모든 교민들의 자유, 호주의 모든 분들의 자유, 한국의 모든 분들의 자유,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자유.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악행 중에 거의 항상 있어온 것이 "노예" 제도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악의 형태인 "노예" 제도인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노예로 사는 것. 그런데, 전에는 "노예"들이 빼앗긴 것이 "자유" 이었는데 이번에는 "자유" 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빼앗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비는 영혼이 없거나 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당연한 것입니다. 전자장과 무기로 하루 24시간 매일 "미세 속삭임"과 "미세 소음"을 받고 있으면 영혼이 없는 그냥 로봇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래서 위의 "리딕" 영화에 half alive half dead 인 좀비 군인들이 나오고 좀비가 되는 것을 거부하면 영혼을 끄집어 내어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에 보면 좀비 군인들이 무제한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자장파로 대량생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방어 장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May God be with you.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좋은 전자장파 협회" 회장 황규상 배상

- 현 호주 이민 법무사 MARN 9473983 (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및 호주닷컴)
- 1994년 이후 32년: hojoo.com 혹은 strathfieldimmi.com
- 현 호주 국가 공인 한국어/영어 양방향 문서 번역사 (호주 스트라스필드 번역)
- NAATI Certified Translator ID: CPN3JD74X, 1988년 이후 38년: Korean.com.au
- 현 호주 주정부 공인 JP 공증인 - NSW Justice of the Peace No. 181856, 20년 혹은 25년 이상

